

실거래가 절반도 안되는 공시가

광주 단독·다가구주택 지난해 공시가, 실거래가의 44.5% 실거래가는 49% 올라...“보유세 누락 커 조세 형평성 훼손”

참여연대 보고서

광주·전남지역 단독·다가구주택의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부동산 양극화가 심해지는 만큼 비현실적 공시가격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 누락 문제 등을 해소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내놓은 '단독주택 공시가격 역시 실거래가 반영 못해'라는 이슈리포트를 따르면 2013~2017년 거래된 전국 단독·다가구

택 55만5353건을 분석한 결과,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5년 전(2013년) 55.4%에서 지난해 48.7%로 6.7%포인트 하락했다.

실거래가 반영 비율에 따라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 규모가 좌우된다는 점에서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의 단독·다가구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59.8%(2013년)→55.9%(2014년)→50.7%(2015년)→47.3%(2016년)→44.5%(2017년) 등

로 가파르게 낮아졌다.

반면, 같은기간 광주지역 실거래가 상승률은 48.7%로, 실거래가가 50% 가까이 올랐음에도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셈이다.

전남도 비슷한 단독·다가구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57.7%(2013년) ▲57.1%(2014년) ▲54.1%(2015년) ▲52.0%(2016년) ▲50.4%(2017년)로 낮아진 반면, 같은 기간 실거래가 상승률은 43.0%였다.

각종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비율도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다.

광주·전남의 지난해 단독·다가구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각각 44.5%, 50.4%인 반면, 제주의 같은기간 실거래가

반영비율은 35.9%로 8.6%, 14.5% 차이가 났다.

또 제주 공시가격(2013~2017년)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18.5%포인트 하락한 반면, 세종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16.8%포인트 상승했다.

참여연대는 이같은 점을 감안, “단독·다가구주택 공시가격은 실거래가 절반 수준으로 형성된데다, 실거래가 반영률도 지역에 따라 차이가 커 조세 형평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공시가격이 비현실적으로 책정되면서 다가구주택 소유자에게 마땅히 과세해야 할 보유세의 누락 효과가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283.20 (-5.46)	↑ 금리(국고채 3년) 1.92 (+0.01)
↑ 코스닥 820.23 (+4.07)	↓ 환율(USD) 1125.30 (-3.10)

광주세관, 제수용품 원산지 위반 점검

12~21일 유통이력신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추석절을 맞아 소비증가가 예상되는 제수용품 등에 대해 12~21일까지 8일간 '유통이력신고' 이행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유통이력관리제도란 수입물품이 시장 유통단계에서 원산지가 바뀌는 등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수입자 및 유통업자가 수입통관 이후 유통거래내역을 관세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유통이력 신고의무자가 양도 후 5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는 행위, 관련 내용을 허위로 신고하는 행위, 유통이력 관련 장부 미기록·미보관하는 행위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관련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의무가 있는 업체들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광주본부세관은 지난 7월 점검(여름철 보양식품류 점검)에 이어, 이번 점검도 유통이력신고 제도 안내와 신고 방법 홍보 등 성실신고 유도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모바일 앱 등 신고 방법을 안내하고 영세업체에 대해서는 유통이력신고 시스템 설치와 사용방법 시연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광주본부세관 관계자는 “유통이력신고제도 홍보와 점검을 통해 추석 성수제품을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는 유통기반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관련규정에 따라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증 설명회

오늘 광주디자인센터...특성화고·폴리텍 대학 등 대상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 12일 광주디자인센터에서 광주지역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대학(전문대·폴리텍대학), 직업훈련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운영방안 설명회'를 연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이란 국가직 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뒤 일정 평가를 통과하는 교육·훈련생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산업인력공단은 지난해 기계설계기사 등 111개 종목을 승인·운영했고 올해는 32개 종목을 추가, 143개 종목으로 확대했다.

과정평가형 자격은 새로운 직업에 도전하는 청년들과 경력단절 근로자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원자들이 적지 않다는 게 공단 설명이다.

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 관계자는 “훈련과정을 거쳐 취득한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만족도가 높다”면서 “기업과 구직자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은행, 추석맞이 어르신들과 나눔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11일 오전 화정동에 위치한 서구노인종합복지관에서 배식봉사활동을 가졌다고 밝혔다.

광주은행 지역사회봉사단은 어르신 700여명에게 건강식을 대접하고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송편 등 명절 음식을 준비하고 배식봉사 외에도 설거지와 식당정소 등을 도왔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광주은행 송종욱 은행장과 서구지역 지점장, 서대석 광주서구청장과 광주은행 직원 30여명이 참여했다.

송종욱 광주은행장은 “지역 어르신들에게 푸짐한 식사를 대접해 한가위의 따뜻한 정을 나누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지역민들의 가까운 곳에서 진정한 마음을 전하는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은행은 무더웠던 올 여름 초복·중복·말복 때 마다 노인복지시설을 찾아가 건강식 배식을 펼치고 더불어 광주의 구별로도 어르신들에게 점심식사를 대접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효성중공업 에너지저장장치 매출 1년새 10배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수요 급증...상반기 1500억원

효성중공업의 매출 신장세가 눈길을 끌고 있다.

11일 효성중공업에 따르면 상반기 에너지저장장치(ESS) 매출이 작년 동기보다 10배 가까이 증가한 1500억원을 달성했다. 지난해 상반기 ESS 매출은 약 151억

원 수준이다.

또 올해 ESS 매출도 2700억원대로 예상되면서 작년(700억원)에 견줘 4배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ESS는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로, 발전량이 가변적인 신재생에너지의 안정적

인 사용에 필수적인 설비다. 최근 전력 공급 불안 해소 및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63.8GWh)까지 늘리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밝힌 바 있어 향후 ESS 시장에 대한 전망도 밝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효성중공업(주)은 ESS 설비 핵심부품으로 전기를 배터리로 저장하거나 전력 계통에 공급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해 주는 전력변환장치(PCS)와 ESS 운영 프로그램인 전력제어시스템(PMS)을 자체 기술로 개발하는 등 기술력을 갖추며 국내 1위의 ESS 업체로 자리잡았다.

효성 조현준 회장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 점유율을 확대하면서 새로운 성장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을 기자 dok2000@

현대·기아차 17~21일 추석 무상점검

현대·기아차는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전국 서비스 거점 방문 고객에게 '추석 특별 무상점검 서비스'를 진행한다.

현대차는 전국 22개 서비스센터와 1400여 개 블루핸즈에 매장에서, 기아차는 전국 18개 서비스센터와 800여 개 오토큐에서 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대·기아차는 방문 고객들을 대상으로 ▲엔진오일, 냉각수, 브레이크, 배터

리, 전구류, 타이어 공기압 등 안전한 장거리 운행을 위한 필수사항 점검 서비스 ▲위서액 보충 서비스 등을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서비스 일정과 장소 등 상세한 사항은 현대·기아차 고객센터(현대차 080-600-6000, 기아차 080-200-2000)로 문의하거나, 현대·기아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Hello, Modern
군산시간여행 1930's

2018 군산시간여행축제

“옛 추억을 만나다”

2018. 9. 14(금)~9. 16(일)

군산근대역사박물관 및 시간여행마을 일원

문의전화 063-454-3304 (군산시 관광진흥과)

축제홈페이지 <http://festival.gunsan.go.kr>